

박용철 강화군수, “군민 소통과 통합의 군수 되겠다” 소통과 통합, 합리적 공직 시스템 구축 등 5대 공약 강력 추진

박용철 강화군수는 17일 군수로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용철 군수는 당선 소감에서 “강화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군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신속히 군정을 안정시키고, 7만 강화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군민 소통과 군민 통합으로 중단없는 강화발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날 공식일정은 수협 사거리에서 군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강화여중 앞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하며, 향후 강화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후 노인복지관 방문, 현충탑참배 후 군청으로 돌아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윤도영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과의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용철 군수는 “전임 군수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여 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했다. 이어 군수실에서

공식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다.

기자실을 둘러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 군의회를 방문해 한승희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군과 의회는 동반자로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하자”며 협력을 호소했다. 이후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방문을 마지막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후에는 부군수로부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및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자리에서 박용철 군수는 5대 군정 목표 ▲소통과 통합, 합리적 공직 시스템 구축 ▲수도권의 새로운 관문, ‘강화시대’개막, 관광산업이 뜨거워 강화 ▲안정적인 농·축·임업 및 수산업 환경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주민재산권 보호 ▲강화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화 ▲빈틈없는 복지로 웃음과 희망이 넘쳐나는 강화를 제시하며, 강화발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 최벽하 기자



박용철 군수 현충탑 참배



박용철 군수 강화여중 앞 등굣길 교통지도



박용철 강화군수 부군수, 각국장과 티타임 모습



박용철군수 간부공무원과 상견례



심도 분석을 통한 상호협력과 실천 강조 강화군, 국정시책 정량지표 실적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



국정시책 실적향상 보고회



국정시책 실적향상 보고회

강화군이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2024년 실적)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정량지표 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위임 사무와 주요 국가 정책, 역점 시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내외에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목표 미달성 정량지표 26개를 중심으로 14개 부서의 21개 담당 팀장이 참석해, 목표 미달 사유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실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8월 말을 기준으로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협업 지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지표 이해도를 높여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행정역량이 외부에 평가되는 만큼, 미달성 지표에 대해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일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군, 농업법인 314개소 대상 실태조사 실시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이 12월 말까지 관내 314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설립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 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강화군, 2024년 노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보호서비스 위해 최선

강화군이 11월까지 노인복지시설 5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섰다. 읍·면 복지담당자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연 1회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설 입소(이용)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지도점검의 주요 사항으로는 ▲조직 및 인력 운영 실태 ▲예산운용 실태 ▲인권보호 ▲안전관리 ▲위생 상태 등을 살피며,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부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소자 안전 및 보호에 영향을 주거나 운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 등 업무 연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노인복지시설 50개소 정기 점검

아름다운 강화의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강화군, 제6회 강화 10월애(愛) 콘서트 개최



오는 19일(토) 17시 강화공설운동장 특설무대 박정현, 다이내믹듀오, 최진희, 김수찬, 오유진 등 인기가수 공연

강화군은 오는 19일(토) 오후 5시 강화공설운동장특설무대에서 ‘2024년 제6회 강화 10월애(愛)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화만사성’을 주제로, 강화군민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군민 행복 콘서트’,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응원하는 ‘희망 충전 콘서트’로 기획해 아름다운 가을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 다이내믹듀오, 최진희, 김수찬, 오유진, 유주가 참여한 이번 콘서트는 전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발라드,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했으며, 공연의 피날레로 아름다운 강화의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놀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본 공연에 앞서 전문 MC의 군민

참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일찍부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과 유쾌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포토존과, 인생네컷, 타투 프린터 등의 부대행사와 푸드트럭을 운영해 행사의 활기를 더하게 된다.

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당일 오후 3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0월애 콘서트는 강화를 대표하는 가을 최고의 문화공연으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강화 미술단체전’이 10시부터 진행되며, 군이 지원하고 있는 4개 미술 단체 회원들의 작품 약 100여 점이 전시된다.

사단법인 송조회, 단기 4357년 단군대제 봉행

사단법인 송조회는 2024년 10월 3일 마니산 입구 상설공연장에서 단기 4357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단군대제를 거행했다.

단군대제 제관으로는 초헌관에는 이성동 송조회 부이사장, 아헌관에는 한기출 교동향교 전교, 종헌관은 류중현 송조회 부이사장이었다.

이날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완익 문화원장, 정명균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최중찬·

고복순 국회의원 등 158명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단법인 송조회 윤문석 이사장은 “10.3 개천절은 우리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께서 최초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라며,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무관심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개천절을 계기로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송조사상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사단법인 송조회, 단군대제 봉행



사단법인 송조회, 단군대제 봉행

강화군,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성료

눈높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참여자의 98% 만족



치매극복의날 (치유농업 프로그램(남부인지건강센터 고추장 만들기))



치매극복의날 (치유농업 프로그램(남부인지건강센터 고추장 만들기))

강화군이 지난 달 진행한 '치매여도 괜찮아!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화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가두 캠페인 ▲찾아가는 치매극복 부스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고추장·김치 만들기' ▲한가위 걷기 챌린지 ▲힐링 프로그램 꽃 화분, 테라리움 만들기 등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으며, 98%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행사에 참여한 A씨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들이 치매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인지건강을 향상시키고, 치매 극복의 첫 걸음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한 달 앞서 운영 / 산불 제로화 다짐

강화군이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11월 1일 ~ 12월 15일)보다 한 달 빠르게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크고 작은 화재 발생 및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12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산불예방활동 및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13개 읍·면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산불 취약지 집중 감시, 불법소각 단속 및 계도 등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군은 AI 산불예찰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산불감시를 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남산, 길상산, 해명산 3개소에 '지능형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산불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 외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통합훈련을 통한 진화능력 배양으로 산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철저히 운영해 지역 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들도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산불진화 시범훈련



산불진화 시범훈련

맑은 밤하늘 별빛 쏟아지는 강화천문과학관의 밤



강화군, 국군의 날 맞이 '천문관측 행사' 진행 구상성단, 토성 등 관측

강화천문과학관, 올해 가장 밝은 혜성과 슈퍼문 함께 왔다! 17일 ~ 20일까지 관측행사 진행



군 장병초청 천문관측행사(주관측실)

강화군이 지난 1일 강화천문과학관에서 지역의 군 장병들을 초청해 천문 관측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근 해병부대, 공군부대, 포병부대 장병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상성단, 이중성, 토성 등을 관측했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맑게 개어 저녁에는 은하수가 설핏 보일 정도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이 펼쳐져, 장병들은 쏟아지는 별빛 아래 가을밤을 만끽했다.

군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최전방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임무를 맡은 인근 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천문과학관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올해 가장 큰 보름달(슈퍼문)과 함께 올해 가장 밝은 혜성인 ‘쯔진산-아틀라스’를 관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17일 초저녁에 만나볼 수 있는 슈퍼문은 달이 공전궤도 상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달의 근지점) 볼 수 있는 보름달로, 평소보다 약 8% 커 보이며 약 15% 더 밝게 보인다. 또한, 작년 초 발견된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이 지난 12일 근일점(궤도상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밝기가 밝아져 맨눈으로도 관측 가능하며, 천체망원경으로 관측 시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혜성은 매우 희미해 육안으로 관측이 어렵고, 이번 관측을 놓칠 시 8만 년 후에나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을 만날 수 있다.

오후 6시부터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달, 혜성, 금성, 토성 등 천체 관측 △스마트폰으로 달 사진 촬영하기 △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 △대형 보름달 포토존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강화천문과학관 이용 요금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중 가장 큰 보름달과 함께 좀처럼 보기 힘든 혜성을 볼 수 있는 멋진 천문 현상을 맞이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슈퍼문과 혜성 모두 기상 상황에 따라 관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구름의 양 또는 관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군 장병초청 천문관측행사 실시(보조관측실1)



강화정신요양원 '청춘은 바로 지금' 바자회 성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 위한 자리 마련



강화정신요양원 바자회

강화군이 지난 8일 강화정신요양원에서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설 생활인과 가족, 종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시설 생활인들과 지역사회 간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과 재화에 대한 동기 부여로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했다.

시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정신요양원은 선원면 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인정받은 바 있다.

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민박사업자 780명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강화군청 전경사진

강화군이 농어촌민박사업자 780명을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관련한 교육은 총 3시간

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통한 민박사업자의 안전 및 서비스 의식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위생관리 등이다.

교육은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이버교육 시스템(<https://minbakedu.com>)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군, 마늘·양파 파종시기 중요 강조 철저한 종구 소독 및 적기 파종 중요



양파 파종

강화군이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마늘과 양파의 적기 파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지형 마늘 파종 적기는 10월 중·하순으로 적정 시기보다 늦을 경우

낮은 기온에 의해 뿌리내림이 나빠진다. 적기에 파종해야 안전하게 월동하고, 초기 생육이 좋아 수량이 많아지고 품질이 우수하다.

양질의 씨마늘로는 병해충 피해가 없고, 한 개의 무게가 4~5g 정도가 적당하다. 10g 이상인 경우 벌마늘이 발생되어 수량 감소 및 상품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적당하지 않다. 또한, 파종 1일 전 또는 당일 아침에 종구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으며, 파종 후에는 5~7cm가량 복토해 동해와 건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양파의 경우 정식 적기는 10월 하순 정도이며, 정식 후에는 기온이 계속 낮아지므로 동해나 건조 피해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현재 평년대비 기온이 약간 높았으나, 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적기 파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기술 지도와 병해충 예찰로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동절기 대비 버스시설물 일제정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모



동절기 대비 버스시설물 일제정비

강화군이 10월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버스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강화군 내 버스승강장 및 버스안내판 총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내 설치된 버스승강장의 △벽체, 지붕, 의자 등 시설물 파손 상태 △조명 등 기타 편의시설 상태, 버스안내판의 △표지판 도색상태 △버스 노선·시간표 부착상태 △ 표지판의 전도 등 버스 이용객에게 불편을

버스승강장 및
버스안내판
일제 정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강화군은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4일 정비대상 148개소를 확정했으며, 이달 안으로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쾌적한 버스승강장 조성을 위해 하반기 청소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2024 강화군 채용한마당 개최

31일 강화 문예회관서 진행...구인 기업은 11일까지 참가 신청하세요!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오는 31일, 강화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 강화군 채용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업·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상담으로 구성되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1:1 면접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행사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본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면접수당 지원, 구직 스트레스 상담 및 구직 확인서 발급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사전 준비가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한 현장 이력서 작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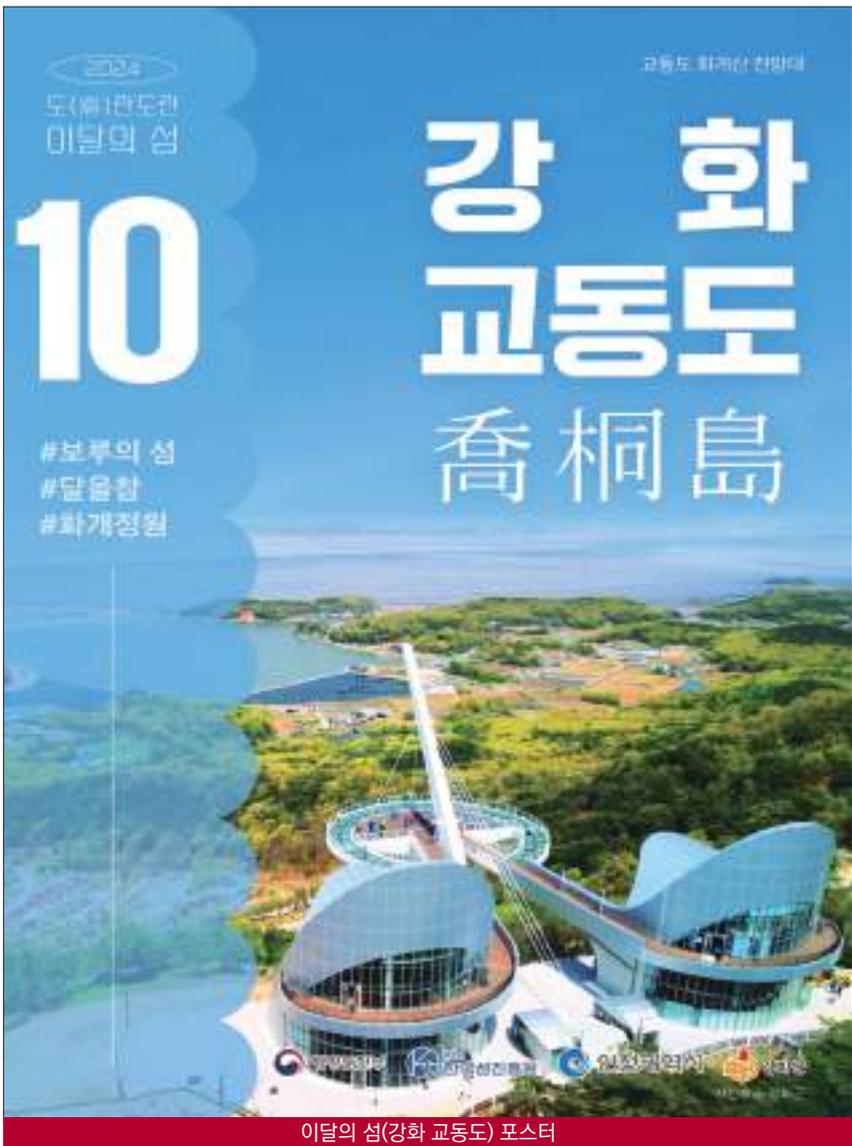
기업의 현장 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및 유관기관의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 외에도 면접 참여자들에게는 선물을 증정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웰컴 음료도 마련돼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참가기업 문의
오는 11일까지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 문의전화
032-934-3088
032-934-3098

강화군 교동도 '10월 이달의 섬' 선정 가을철 떠나기 좋은 국내 섬 8곳 중 1곳으로 선정



이달의 섬(강화 교동도) 포스터

강화군의 교동도가 '10월 이달의 섬'에 선정됐다.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매월 '이달의 섬'을 선정하고 있으며, 24개의 섬 중에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곳의 섬을 선정했다.

교동은 '시간이 멈춘 섬 교동도'라는 테마로 5월 경남 추도, 6월 인천 백령도, 7월 경남 연화도, 8월 충남 외연도, 9월 제주 가파도, 11월 신안 흑산도, 12월 전남 관매도와 함께 가을철 떠나기 좋은 섬에 선정됐다.

선정된 8곳 섬에 대한 여행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화군의 교동도는 38선 근처 황해 해역에 위치해 북한과 거리가 2.6km에 불과한 접경 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해

을 형성했다.

이에 2014년 교동대교 개통 이전에는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시간이 멈춘 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특히, 1960년~1970년대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대룡시장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복고풍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골목의 옛 간판과 벽화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황해도식 만둣국 등 피난민의 음식도 맛볼 수 있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나들이하기 좋은 10월 교동도를 방문해 피난민의 애환이 서린 망향대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룡시장도 둘러보고, 수도권 최고의 휴식형 가족 정원인 화개정원을 방문해 서해바다를 조망하면서 가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 '텀블러 나눠쓰기 캠페인' 전개 기부받은 220여 개 텀블러, 노인복지관에 따뜻한 나눔

강화군이 지난 4일 「텀블러 나눠쓰기」 캠페인을 통해 텀블러 220여 개를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집에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기부받아 세척 소독 후 생분해성 비닐로 진공포장했다.

다가오는 겨울철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재사용 텀블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일회

용 컵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등의 환경호르몬을 분비하는 소재의 1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2년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33배 정도 줄일 수 있고, 약 37kg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발생해 한 개의 텀블러를 장기간 쓰는 것이

환경적으로 가장 좋다.

군 관계자는 "이번 텀블러 기부는 직원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좋은 사례입니다."라며, "강화군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과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텀블러 나눠쓰기 오래쓰기 캠페인



텀블러 나눠쓰기 오래쓰기 캠페인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적격성조사 돌입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7월에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인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을 10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최초의 도시고속도로로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연장 18.7km,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고 공사 기간 5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손익공유형)으로 추진된다. 이 도로는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 3축 광역간선도로망으로, 완공 시 인천항, 인천시청 등 주요 거점에서 서울 여의도 및 강남권까지의 통행시간이 30~4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1경인,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 노선은 2020년에도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적격성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성 부족(B/C 0.94)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인천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광역도로망으로 반영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도 반영하는 등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 의향을 밝힌 민자사업자와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2025년 말 적격성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하고, 이후 제3차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 절차를 거쳐 2034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원도심 지역 약 70만 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와 함께 인천 원도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역에 우선 지원책 내놔 전문가가 24시간 소음 측정, 정신건강 지원, 가축 피해 예방 방안 즉시 추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4천여 명에 달하는 강화군 주민들이 수면 장애, 노이로제 증상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우선 지원방안을 내놨다.

인천광역시는 북한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우선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마련해 우선 추진하는 지원방안은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의 소음 피해 강도와 규모의 정확한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및 마음건강지원 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이다.

주민들의 심리상담과 회복을 위해서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피해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우선 투입하고,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는 이달 초 스트레스 완화제 15kg를 우선 배부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부와 방역 홍보·지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정부에 ▲북 소음방송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민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우선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이미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민 피해 파악 및 체계적 소음측정, 주민과의 소통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강화군과 서해5도를 비롯한 우리 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
기교

강화도령 원범이의 첫사랑은

이경수



용흥궁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화도령인가, 우두커니 앉아 있겠어?”

속담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는 일 없이 날만 보내는 사람을 비꼬아, “강화도령인가?” 이렇게 말한대요. 강화도령이 이원범이잖아요. 철종으로 즉위했으나,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그저 멍때리며 세월을 보냈다는 인식이 속담에 담겼습니다.

‘강화도령’이라는 네 글자의 느낌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정겹게 여기고, 어떤 이는 냉소합니다. 두 느낌이 합해지기도 합니다.

제 첫 직장이 경남 마산의 어느 고등학교였습니다. 수십 명 교사 가운데 경기도 출신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이경수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더 자주 불린 호칭이 “강화도령!”이었습니다. 부르는 이나 듣는 저나 ‘강화도령’은 그저 친근하고 정겨운 별명이었습니다.

‘강화도령’에 양가적 감정이 스며 있는 데 반해, 임금 ‘철종’은 일관되게 부정적입니다. 허수

아비 임금, 꼭두각시 임금이라는 것이죠. 정말, 과연, 철종은 그렇게 한심한 왕이었을까요?

교동에서 강화로

지난 호에서 원범의 할아버지 은언군 이인과 아버지 전계대원군 이광을 소개했습니다.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은언군과 가족이 강화로 귀양 왔다고 했습니다. 은언군은 10여 년 유배 살다가 사망했고, 이광은 30여 년 만에 풀려나 강화에서 서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서울 가서 결혼하여 이원범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원범이 강화에서 태어났다고도 말해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강화로 유배됩니다. 14살에 강화에 귀양 와서 19살에 임금이 되어 한양으로 갑니다. 강화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원범 유배지가 교동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교동으로 갑니다. 얼마 뒤 강화읍으로 옮겨집니다. 원범이 교동에서 유배살이한 기간은 대략 20일 정도입니다. 길지 않았어요. 《교동군읍지》(1899)에 철종이 교동읍성 동문 안 초가에 머물다 강화도로 옮겨졌다고 나옵니다. 《속수증보강도지》(1932)도 철종 유배지가 “예전에 교동읍성 동문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고 주민들이 산다.”라고 적었습니다.

원범이 강화로 유배된 이유는 할아버지·아버지처럼, 또 역모사건에 엮였기 때문입니다. 역모 세력이 헌종을 내몰고 이원경을 새로운 왕으로 앉히려 하고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원경은 이광의 적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범의 이복형입

니다. 이원경은 죽임을 당했고, 원범 등 가족들은 유배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왕족의 지위가 워낙 높고 생활이 화려하니, 백성들이 선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족은 언제 갑자기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운명이었습니다. 누군가 반역을 꾀하다 붙잡혔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새로운 임금으로 왕족 아무개를 모시려 했다고 말하는 순간, 아무개는 사형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역 음모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죄가 없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가 ‘강화도령’이라 했나

‘강화도령’을 철종이 강화에서 귀양 살 때 생긴 별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는 강화도령으로 불리지 않았습다. 강화 사람들이 굳이 강화라는 말을 붙여서, 원범을 강화도령이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도령으로 불려야 한다면, 한양에서 왔으니, ‘한양도령’이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화도령’은 강화 바깥에서 생긴 호칭일 것이고 그렇다면, 원범이 강화를 떠나 즉위하게 되는 그 무렵에 생겨난 호칭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동아일보에 ‘도성민인(都城人民)’들이 그러니까 한양 사람들이 새 임금을 ‘강화도령님’으로 불렀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장가가기 전이라서 그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철종이 한양으로 즉위하려 갈 때 수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몰려나와 구경했습니다. 한양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든 장면이니 사람들 모이는 게 당연하지요.



임금님의 첫사랑_ 스틸(출처: 궁속의 나비 블로그)



새 임금이 즉위하는 것만도 백성들에게 일대 사건이요, 큰 뉴스인데 하물며 새 임금이 강화에서 온다니! 임금은 궁궐에서 태어나 자라고 거기서 왕이 되는 법인데, 그게 아니라 외지에서 모셔온다니! 새 임금이 강화에서 온다는 자체가 신기했을 것입니다.

한양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 강화에서 모셔온다네.”

“몇 살쯤 되셨으려나.”

“열아홉이라지 아마. 아직 총각이라는 것 같던데.”

“도령님일세, 강화도령님!”

‘강화도령’이 널리 알려진 배경

다음 글은 어느 소설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밑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에 들어갈 물품은 무엇일까요? 힌트, 세 글자입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고, 세 개의 작대기를 동그라미 위에다 세로로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 뒤 누나가 하는 대로 빗금을 세 겹가 굵고 돼지꼬리 같은 걸 맨 마지막으로 그려 넣으니 훌륭한 < >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화 출신 소설가 구효서의 《라디오 라디오》(199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이 라디오? 아니고요, ‘스피커’가 정답입니다. 돌아보니 그런 때가 있었네요. 스피커가 라디오였던 시절 말입니다. TV로 연속극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스피커나 라디오로 연속극을 듣던 시대였습니다.(‘스피커’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1963년 초, 연속극 하나가 엄청난 인기를 끄니다. 이서구가 극본을 쓴 ‘강화도령’입니다. 물론 원범이 이야기이지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신상욱 감독에 신영균과 최은희가 주연한 ‘강화도령’입니다. 역시 대히트! 그래서 속편 영화 ‘철종과 복녀’까지 나오게 됩니다.

라디오 연속극과 영화로 잇달아 강화도령이

소개되면서 이후 ‘강화도령’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녘 끝 마산의 학교에서도, 강화 출신 교사를 자연스럽게 강화도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영화 ‘강화도령’을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1963년 작품이니깐요.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유튜브에서 ‘강화도령’을 검색하면 바로 이 영화가 나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화면과 음향을 깨끗하게 다듬어서 공개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대작, 흑백영화인데요, 볼만합니다.

임금님의 첫사랑

드디어 세상에 TV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원범을 주인공으로 하는 TV 드라마도 등장하게 됩니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TBC(지금 KBS2) 방송국에서 방영된 사극, ‘임금님의 첫사랑’입니다. 신봉승이 극을 썼습니다. 줄거리가 대략 이러해요.

원범(김세운 분)이 강화에서 유배 살 때 양순이(김미영 분)와 사랑하게 된다. 첫사랑이다. 그런데 원범이 생급스럽게 임금이 되고 만다. 원범은 강화에 두고 온 양순이를 궁궐로 불러올리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 그저 그리워만 했다. 서로 지독하게 원했지만 지독하게도 둘은 만날 수 없었다. 결국, 양순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다.

‘임금님의 첫사랑’은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전남 백양사에서 보내준 삭도(머리 깎는 칼)로 서울 봉원사에서 삭발의식을 치른 양순이 역 김미영, 여배우 최초의 삭발이라 당시 커다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양순이 어머니 역의 배우 사미자는 강화 사투리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해서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임금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땅을 거예요. 어느 강의에서 이 연속극 주제 음악을 들었더니 적지 않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더군요.

강화섬 꽃바람이 물결에 실려 오면
머리 위에 구름이고 맨발로 달려 나와
두 마리 사슴처럼 뛰고 안고 놀았는데
잡고지 나루터에 뚫단배 떠나던 날
노을에 타버리는데 임금님의 첫사랑

1절만 읊었습니다. 가사가 예뻐요. “두 마리 사슴처럼 뛰고 안고 놀았는데” 원범이와 양순이의 싱그러운 사랑이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라디오 연속극 ‘강화도령’에서는 원범의 첫사랑 이름이 봉이였고, 영화 ‘강화도령’에서는 복녀였습니다. 봉이, 복녀, 양순이. 셋 중 진짜 원범의 첫사랑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예 원범의 첫사랑이 없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드라마 극본은, 그게 사극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작가가 창작한 허구입니다.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 작가가 봉이, 복녀, 양순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모든 극의 주요 소재입니다. 이게 빠지면, ‘앙꼬’ 없는 찌뽕이 되기 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강화도령’에 원범의 사랑 이야기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큰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순이를 원범의 첫사랑으로 굳게 믿고 계셨던 분, 혹시 실망하셨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스토리텔링은 또 그대로 소중한 겁니다. 양순이는, 임금님의 첫사랑은, 여전히 값진 강화의 문화 자산입니다.

영화에서 원범은 나무꾼으로 나옵니다. 어디 영화만 그런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원범이 강화에서 나무꾼으로, 농사꾼으로 살았다고 나오죠. 먹고살려니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꾼 출신 임금님, 농사꾼 출신 임금님으로 소개됩니다. 구박데기로 살다가 신발 한 짝이 계기가 되어 왕자와 혼인하는 신데렐라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원범은 정말 나무꾼이었을까요?

다음 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철종의 모습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령인가, 우두커니 앉아 있게?” 이 속담이 타당한 것인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영화 ‘강화도령’ 신문 광고(출처 마산일보, 1963)

기고

신임 강화군수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 (1)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군수를 선출하기 위한 한바탕 잔치가 끝났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지역 민심을 표출하고 출마자는 출마자대로 표를 얻으려 안간힘쓰며 지역을 왁자지껄하게 만들었던 한편의 선거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했는데 과연 꽃처럼 아름답고 신나는 축제였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일 벌어지는 정치판 ‘이전투구의 장’의 연속이었는지는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사실 이번 잔치는 단순한 기초자치 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불과했다. 중앙정치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만한 전국적인 이슈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니 방탄정쟁이니 하는 중앙 이슈속에 어찌보면 강화도 그 자체는 실종된 선거였다. 정치권과 언론의 과도한 관심 속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치러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평생 강화를 찾은 일이 거의 없을 주요 당직자들까지 강화를 찾아 소속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군수를 선출하는데 야당 대표가 ‘끌어내려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쟁을 꾀하려 했다며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은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보수의 세가 강한 강화군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정치권과 언론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다 보니 막상 여야 대결만 치열했지 정작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타당성 있는 지는 제대로 살펴보거나 점검하지 못한 채 정쟁에 휩쓸리는 선거가 되고 말았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치러야 하는지 또 다른 과제를 던졌다.

어찌됐든 10월 16일 밤 새로운 강화군수가 탄생한다.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새 강화군수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임기는 1년 6개월 정도에 남짓하다. 지난 3월 강화군수 유고 이후 7개월 넘게 공석이였다. 강화군수는 어떤 자리인가.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공복(公僕)으로 강화군 행정 권력의 최정점이다. 공복이라는 뜻이다. 공복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도 하고, 정부에 의해 임명되기도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복이 임명된 공복보다 힘이 세고 이에 맞게 권력을 행사함은 당연하다.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과 군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강화군수가 됐다. 신임 군수 앞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난 해소,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 강화군수가 강화를 발전시키고 강화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전 군수들의 공과를 잘 헤아려 군정을 펼침은 기본이다. 그러나 그 기본이 때로는 사라지고 망가져 강화군정이 합리적이거나 세련되지 못하게 펼쳐져 온 것은 사실이다.

신임 군수는 무엇보다 첫째로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강화군수는 강화군에서

최고의 공복이다.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순간 군정이 꼬이게 됨은 당연하고 결국에는 일선 공무원과 강화군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강화군이 핵심적인 관광 사업으로 펼친 교동의 화개정원을 놓고 뒷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뒷맛이 개운치않다.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면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야지 군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끼리끼리식의 군정운영이다. 형이나 아우에게 밀어주고 댕겨주는 것이 겉으로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그러나 이는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함이고, 자신이 강화군수라는 자리를 망각하는 처사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챙겨야 쥘 인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물들의 감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군수가 잘 알아야 한다.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인물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는 순간 그 조직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셋째는 독단적 행정이다. 마치 군수가 내가 강화군정을 가장 잘 아는듯한 자세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면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척 보이거나 속으로는 끓는다.

1년 반의 임기는 어찌보면 군정을 제대로 펼치기에 넉넉지 않을 지도 모른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내기엔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이면 자신의 능력과 색깔, 강화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엔 충분하다. 무조건 성과를 보여주려는 다급함이나 술수보다는 진정으로 강화군민과 함께, 강화 공무원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강화 원도심 도보 여행' 인천에서 꼭 해야하는 9가지 경험에 선정

인천 야간·노을 명소 선정에 이어 인천 9경 선정



원도심 도보 여행

'강화 원도심 도보 여행'이 인천에서 꼭 해야 하는 9가지 경험 '인천 9경' 중 한 곳에 선정됐다.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인천 9경을 선정했다.

'강화 원도심 도보 여행'은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강화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길을 직접 걸으며 강화의 숨결을 느끼고, 한복, 다도 등 다

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도보 해설을 들으며 각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좋다. 포털 사이트에 '용흥궁 해설사 대기소'를 검색해 사전 예약 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강화 동막해변과 장화리 일몰조망지가 인천 노을·야경 명소 10선에 선정됐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넓은 갯벌이 펼쳐진 동막해변과 데크 앞바다에 자리한 대섬 너머로 붉은 해가 사라지는 장관을 볼 수 있는 장화리 일몰조망지는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조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도심 도보여행은 현장감 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선선한 가을, 가족과 함께 강화를 방문해 원도심 도보 여행도 하고,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멋진 낙조도 구경하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속노랑고구마로 가을의 맛을 즐기세요

강화군, 당도 높은 '속노랑고구마' 지금이 제철

강화군의 대표 특산물인 '속노랑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당도 높고 영양소가 풍부한 강화속노랑고구마는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일반 고구마보다 속이 노랗고, 당도가 높아 상품성이 뛰어나다.

특히, 속노랑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유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강화 고구마 하면 '속노랑고구마'로 인식하고 소비하는 고정층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본격 출하 시기를 맞은 10월 초부터 강화군 주

요 도로변과 고구마밭 인근 직거래 판매장에서 바로 수확한 속노랑고구마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속노랑고구마 품질 개선을 위해 고구마 생산 농가에 조직배양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모든 농가가 조직배양묘로 고품질의 속노랑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속노랑고구마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당도 향상 등 품질 고급화를 위해 끊임없는 현장 기술 지도와 농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속노랑 고구마 지금이 제철

강화군시설관리공단, ESG 경영 일환 농촌 봉사활동 펼쳐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이 지난 12일,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과 함께

불은면 소재 과수농가에서 농촌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추진됐

으며,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단체 너나들이 봉사단 직원 25명은 2천여 평의 배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운반하는 등 상품화 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송왕근 이사장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봉사에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ESG 경영활동이 지역사회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ESG 경영 일환 농촌 봉사활동

강화군, ‘갑비고차 전원생활연구회’ 훈훈한 선행 펼쳐 귀촌자 모임, 손수 만든 100만원 상당 친환경세계 기부



갑비고차 전원생활연구회 기부

강화군이 지난 7일 귀촌자모임인 ‘갑비고차 전원생활연구회’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100만 원 상당의 친환경세계를 강화푸드뱅크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갑비고차 전원생활연구회(회장 이기영)는 강화군에 귀촌한 사람들이 2005년 처음 모임을 시작한 단체로 20년간 회원 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한 농촌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기영 회장은 “회원들의 봉사활동으로 만든 제품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가족센터, “사랑의 쌀로 지역사회 온기 전달해요!”



강화군가족센터, “사랑의 쌀로 지역사회 온기 전달해요!”

강화군 가족센터(센터장 박우석)가 지난 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구세군의 지원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센터 회원 70가구에 20kg 쌀 70포를 전달하며, 많은 가정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가 결속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나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정들이 참여한 만큼 더욱 의미가 깊었다.

한 다문화 가정은 “강화군가족센터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고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우석 센터장은 “이번 쌀 나눔 행사는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도움을 주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강화군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가을철 감염병 알면보인다!

백일해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퍼투시스(Bordetella pertussi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심한 기침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침 후 "흡"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발작적인 기침이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성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DTaP 백신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이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뇌염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은 무증상이지만, 일부는 고열, 두통, 경련, 혼수 상태 등 뇌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

으며, 뇌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모기 퇴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은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고열, 발진, 림프절 비대, 전신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물린 부위에 특징적인 검은 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회복 가능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진드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해 발생하

는 감염병으로, 주로 오염된 물이나 흙과 접촉할 때 전파됩니다. 증상은 발열, 근육통, 두통 등으로 시작하며, 심한 경우 황달, 출혈,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장마철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염된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들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 질과의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고열, 두통, 복통이 있으며, 진행되면 신부전 및 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들쥐 서식지와의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카드 및 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설치류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적절한 복장 착용하기입니다!

1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 고여있는 물 등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하거나 작업하지 않기
-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방수처리 된 작업복, 장갑, 장화 착용하기
- 농작업, 수해 복구 등 작업 후 4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1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수칙

- 쥐 배설물 접촉 피하기
- 귀가 시 옷 세탁 및 목욕하기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등 고위험군의 경우,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3회 받기

강화군, 코로나19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진행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내년 4월 30일까지 '24~25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군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생 이전)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접종은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등 지참 후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된다. 접종가능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

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2-930-4076/4067)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은 JN.1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이며 보건소(보건지소)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나, 접종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백신과 접종 요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사전문의 이후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벽하 기자

2024년 10월 15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59년 12월 31일 이전생)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1회

지원기간

- 75세 이상 (1949.12.31 ~ 1959.12.31) : 2024.10.15(수) ~ 2025.4.30(수)
- 70~74세 (1954.12.31 ~ 1964.12.31) : 2024.10.15(수) ~ 2025.4.30(수)
- 65~69세 (1959.12.31 ~ 1969.12.31) : 2024.10.15(수) ~ 2025.4.30(수)

지원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4회는 꼭 받습니다!

- 고위험군(고령, 만성질환, 면역저하자 등)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받기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2회 받아야 합니다!

- 65~69세 (1959.12.31 ~ 1969.12.31) : 2024.10.15(수) ~ 2025.4.30(수)
- 70~74세 (1954.12.31 ~ 1964.12.31) : 2024.10.15(수) ~ 2025.4.30(수)
- 75세 이상 (1949.12.31 ~ 1959.12.31) : 2024.10.15(수) ~ 2025.4.30(수)



장엄사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정화의 불꽃 낙화축제

날짜 · 10월 26일(토) 17:30~
장소 · 장엄사 잔디 마당(화도면 흥왕리)

시원의 밤하늘에 수놓을 정화의 불꽃 낙화축제가 10월 26일 강화 마니산 장엄사에서 열린다.

낙화(落火)는 낙화봉에 불을 붙혀 불꽃이 환상적으로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듣고 감상하며, 수구즉득다라니를 염송하면서 속세의 탐욕과 증오기운을 정화(淨化)하여 일상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하는데 의미가 있다.

낙화의례는 삼국시대부터 불교의식으로 전해 오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세종시 영평사의 소장본 「오대진언집」을 기반으로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장엄사에서도 한국불교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하여 낙화법을 봉행하기로 하였다. 장엄사 주지 혜선 스님은 이 지역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낙화의례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 하여 장엄한 불꽃에 모든 재앙과 재난을 태워버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가정마다 행복이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전하였다.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